

광주·전남 태극전사 메달 사냥 나선다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팀 ‘광주FC’

펠리페·이도름·이한도 베스트11



광주FC가 하나원큐 K리그2 2019 15라운드 베스트팀으로 선정됐다. 광주는 지난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을 상대로 4-1 완승을 거뒀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쳤지만 후반에만 4득점을 터트리며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도름이 프리킥골로 포문을 열었고, 득점 선두를 달리는 펠리페가 멀티골로 공격 본능을 뽐냈다. 교체 투입된 윌리안도 썬기골을 터트리며 화끈한 골 잔치를 벌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개막 후 15경기 무패행진(9승6무·승점33)으로 리그 선두를 이어갔다. 광주와 부천의 경기는 15라운드 베스트매치로도 선정됐다. 광주가 올 시즌 베스트팀과 베스트매치로 선정된 것은 2라운드 아산전(4-0 승리) 이후 두번째다. 베스트11에는 펠리페, 이도름, 이한도가 포함됐다. 이정협(부산) 펠리페(광주) 안병준(수원FC·이상 FW), 김병오(수원FC) 장혁진(안산) 방찬준(안산) 이동준(부산·이상 MF), 이도름(광주) 수신야르(부산) 이한도(광주·이상 DF), 박형순(수원FC·GK)이 15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MVP는 안병준이 선정됐다. /최진화 기자

‘팀 K리그’ vs 유벤투스FC 내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K리그 선발팀(이하 ‘팀 K리그’)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끄는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FC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 간 친선경기를 오는 7월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유벤투스FC는 세리에A 최다 우승(35회), 코파 이탈리아 최다 우승(13회), UEFA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클럽이다. 이번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유벤투스FC 선수단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해, 지난 시즌 세리에A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1군 선수들로 구성된다. 유벤투스FC는 지난 1996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지 23년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FC서울과 경기를 치른 지 12년만에 한국을 찾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오는 7월, K리그와의 멋진 경기를 통해 한국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팀 K리그’는 K리그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팬 투표 등 선수 선발 방식과 경기 진행 방식, 티켓정보 등은 추후 확정된다. /최진화 기자



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제전 2019나폴리하계유니버시아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나폴리U대회는 육상 등 15개 종목에 170개국 8,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열전을 펼친다. 한국선수단이 13종목 272명(본부 19명 임원 65명 선수 207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소속 선수 16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시 소속 선수는 8명, 광주 출신 선수는 1명이다. 육상 남자 400m에서 조선대 모일환(2년)이, 태권도에서 조선대 황예빈(1년)이 품새 종목에 나선다. 모일환은 지난해 전국체전 200m와 400m 금메달리스트로 최근 광주에서 열린 2019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2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었다. 황예빈은 유니버시아드선발전전에서 2위를 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다이빙에는 광주시체육회 소속 4명이 출전한다. 이재경(남·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2



내달 3~14일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광주 육상 400m 모일환·펜싱 전수인 등 9명 출전

전남 양궁 최미선·유도 박다솔 등 7명 메달 도전 한국선수단 13종목 272명 구성 오는 26일 결단식

년), 류민재(남·남부대 2년), 정다연(여·서울디지털대 1년), 박하림(여·동신대 4년)이다. 이재경과 정다연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스피링보오드3m, 싱크로다이빙3m 금메달리스트다. 펜싱에서는 호남대 전수인(2년)과 김정미(1년)가 사브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수인과 김정미는 유니버시아드 파견선발전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전수인은 2019아시아청소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개인·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광주체고 출신의 김우중(용인시정)은 육상 남자 창던지기 대표로 발탁됐다. 한국선수단 임원중 광주 출신은 3명이 있다. 광주시체육회 고병진 다이빙 코치와 호남대 김병진 펜싱 코치, 그리고 광주체고 출신의 유진욱 한국체대 체조 코치가 대회에 출전한다. 전남도 소속 선수는 2명, 전남 출신

선수는 5명이 대표팀에 포함됐다. 양궁 최미선(순천시청), 유도 박다솔(순천시청)은 메달이 유력한 선수들이다. 두 선수 모두 올해 초 광주여대와 용인대를 졸업해 이번 유니버시아드 출전 자격을 갖췄다. 특히 최미선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개인·단체전 은메달,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성인 국가대표팀으로 활약중이다. 박다솔 역시 2017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동메달, 2018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다. 이외에 광양제철고 출신의 남자축구 대표팀 김효찬(성균관대), 여수 마평초 출신 오찬식(광운대), 순천제일고 출신 남자배구대표팀 김명관(경기대), 목포 상업고 출신 수영 수구대표팀 장덕(한체대)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육상 남자 세단뛰기 김장우(한국체대)도 전남체고 출신이다. 김장우는 지난달 제48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5.79m로 금메달을 걸며, 올 시즌 2관왕 달성과 함께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최근 열린 2019 한·중·일 친선육상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15m94를 뛰었다. 임원중에서는 태권도 박은석 감독(신문대), 요트 정성안 코치(대한요트협회), 여자축구 유영실 감독(대덕대)가 전남 출신이다. 2019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선수단 결단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다. 한편,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명령제한 규정이 올해 대회부터 18-28세에서 18-25세(1994년1월1일~2001년12월31일)로 변경됐다. /최진화 기자



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강정호(가운데)가 1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 5회 말 중견수 쪽 강한 타구를 친 뒤 3루에 도달하고 있다. 4년 만에 나온 3루타다. /AP=연합뉴스

전남기술과학고 여름철종별배드민턴 준우승

남고부 단체전 결승 충남 당진정보고에 2-3 역전패

전남기술과학고가 지난 17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기술과학고는 결승에서 충남 당진정보고에 2-3으로 아쉽게 패했다. 지난 봄철리그전 준우승팀 당진정보고와의 결승전은 그야말로 었지락 뒤지락 대접전이었다. 전남기술과학고는 첫게임 단식에서 박현승(3년)이 김성준에게 2-0(21-16 21-11)으로 승리했지만, 2번째 게임에서 박관우(3년)가 이석찬에게 1-2(12-21 21-15 10-21)로 패하며 동물이 됐다. 3게임 복식에서 박현승-노민우(이상 3년)조가 진용-이병진 조를 2-0(21-17 21-19)으로 누르며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한 전남기술과학고는 그러나 4번째 게임에서 김병철-김석우(이상 2년)조가 이석찬-조성민조에 0-2(15-21 15-21)로 패하며 승부는 게임스코어 2-2 원점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게임에 나선 노민우(3년)가 진용에게 1-2(21-14 7-21 9-21)로 지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전남기술과학고는 3월 회장기 대회 3위, 4월 봄철대회 8강 탈락의 아쉬움을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달랠 수 있었다. 또한 오는 10월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는 전남기술과학고는 올해 두차례나 패한 당진정보고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전남기술과학고는

17 21-19)으로 누르며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한 전남기술과학고는 그러나 4번째 게임에서 김병철-김석우(이상 2년)조가 이석찬-조성민조에 0-2(15-21 15-21)로 패하며 승부는 게임스코어 2-2 원점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게임에 나선 노민우(3년)가 진용에게 1-2(21-14 7-21 9-21)로 지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전남기술과학고는 3월 회장기 대회 3위, 4월 봄철대회 8강 탈락의 아쉬움을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달랠 수 있었다. 또한 오는 10월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는 전남기술과학고는 올해 두차례나 패한 당진정보고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전남기술과학고는



전남기술과학고가 제62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강병운, 임석우, 박준원, 김병철, 박관우, 김원식, 노민우, 박현승. /전남체육회 제공

광주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오늘부터 3일간 열전

빛고를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들의 스포츠 제전 제12회 광주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가 20~22일 3일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1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18일), 게이트볼, 탁구, 수영, 배구(20일), 보치아, 역도, 론볼, 볼링, 배드민턴(22일) 등 10개 종목에 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오는 10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 대표선수 선발전도 겸해 열린다. 장애인체육대회는 20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대회기 전달,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전남체전 운영개선평가회 운영방식·전산화 등 논의

전남도체육회는 19일 영광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조준성 영광군수(영광군체육회장),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개선평가회에서는 대회 운영 개선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운영 홈페이지 구축, 대회 참가 자격, 동호인 시스템 등록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기운영 방식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실업팀 및 상위팀을 제외하고 하위 시·군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드 배정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으며 전남 최대의 체육대회인 만큼 종목별 세부 규정도 전국체전과 비슷한 수준의 엔트리 인원 수 증가와 유니폼(도복)에 대한 규정 등의 변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체육회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오는 7월 중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회의 개최, 8월 중 전남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 9월 중 전남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친다. 9월 중에는 운영개선사항을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제59회 대회는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최진화 기자